나의 언니는 악녀였다. 엘하임 제국의 역사에 두고두고 새겨져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올라가게 될 세기의 악녀. 허영에 절어 사는 공녀 엘레니아는 끊임없는 질투에 사로잡혀 황태자의 어여쁜 약혼녀를 괴롭혀왔었다. 그러나 황태자의 어여쁜 약혼녀 알로이스는 공녀 엘레니아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애와 신실한 태도로 그녀를 포옹해주었다. 태생부터 썩어빠진 악녀에게는 과분한 처사인 줄도 모르고. 악녀의 끊임없는 계략에도 불구하고 두 고귀한 남녀의 사랑은 전설의 명검조차 벨 수 없을 만큼 견고하였다.

황태자의 사랑을 얻지 못한 악녀는 끝내는 흑마법에 손을 대었고, 기어이 제국을 큰 위험 앞에 밀어넣었다. 흑마법의 힘으로 불결한 마물들과 계약을 하여 타락한 공녀는 거리낌이 없었다. 악녀의 흑마법에 이끌린 마물들은 사악한 술책으로 귀족들의 영지와 황손을 위협해가며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기적인지, 혹은 신의 도움인지. 엘하임 제국의 황태자와 그의 약혼녀는 기적처럼 악녀와 그녀의 마물을 꺾고 제국의 평화를 이루어냈다. 두 사람의 사랑의 힘으로 악녀 엘레니아는 처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변명할 여지없는 악녀로서 제국민에게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악녀가 사라진 후 평화가 찾아왔다. 꽃이 피고, 어둠이 물러나고, 더러운 흑마법은 자취를 감추고, 황태자와 황태자비를 칭송하는 노래와 어리석은 악녀를 비웃는 노래가 제국에 넘쳐 흐르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나는 홀로 가문에서 살아남아 악녀였던 언니를 기억한다. 나의 언니는 역사에 남을 사악한 악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니를 사랑했다.

01.

1374년의 어느 추운 겨울. 악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약 22년이 넘어가는 해였다. 엘하임의 황태자 헬리스 엘하임이 황제로 즉위한지 19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였다. 오늘의 제국은 전날과 다름이 없었고 내일과 다르지 않을 터였다.

악녀이자 공녀인 엘레니아의 목이 잘린 후, 공녀가 속한 가문 벨칸스는 완전히 몰락했다. 벨칸스의 죄목은 반역으로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한 일이었다. 남아있던 식솔들은 불명예스럽게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고 피를 나눈 혈족들은 대부분 공녀와 같은 길을 밟았다. 아름답던 벨칸스의 대저택 앞으로 많은 사람의 목이 내걸렸다. 드높던 공작가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모습을 감추었다.

모든 이들의 조롱 속에서 엘레니아의 숨이 끊겼고, 차례로 그녀의 아버지와 조모가 사망하였다. 부모 같았던 유모가 엘레니아의 남동생을 지키기 위해 막아서다 기사들의 칼에 찔려 죽을 때도. 친절하고 재미있던 하인과 하녀들이 배신을 하거나 모습을 감출 때 조차도. 엘레니아의 동생이자 악녀의 두 살 어린 동생, 일레인 벨칸스는 처절하게 혼자서 살아남았다. 벨칸스와 피를 나눈 갓난아기까지 죽어 흙이 되어도 일레인은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아 벨칸스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가문과 함께 스러져 죽고 싶을 만큼 앞날이 두려웠으나, 두려운 만큼 지켜야 할 유일한 것이 있었다.

일레인은 시셀이라는 시골 한 마을에 위치한 교회로 숨어들었다. 엘하임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섬기는 신 ‘레니에스’의 작은 품 중 하나로. 그녀는 잃어버린 한쪽 눈과 시뻘건 화상으로 엉망이 되버린 반쪽 얼굴, 어느 순간부터 희게 새어버린 흰 머리카락을 내세워 떠돌이로 위장할 수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다. 갈색머리를 가진 곱고 차분한 귀족 영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개의치 않았다. 일레인은 ‘일레인 벨칸스’가 아닌 평민 성직자 '벨'로서 스스로를 시골 구석에 숨기고, 처형당한 악녀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 또한 아무도 모를 장소에 숨겼다. 그제서야 일레인은 안심했다. 황태자가 어느날 들이닥쳐도, 그녀의 목을 비틀며 언니가 남긴 유품의 행방을 물어도 죽는 순간까지 남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언니의 마지막 흔적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생존자 일레인이 성직자 벨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나 둘 잊혀져가며 세월 또한 흘렀다. 그녀는 벨이 된 후로 단 한 번도 수도 근처에 얼씬거린 적이 없다. 황태자가 황제가 되고. 악녀의 미움이었던 약혼녀 알로이스가 황후가 되고. 그러한 그녀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이 모든 변화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소문으로만 잠시 귀에 담았다. 재미있지도, 그렇다고 무섭지도 않았다. 황태자 헬리스에 대한 원망도,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도 마음 속 숨겨진 작은 상자에 전부 쓸어 담은 후였기에.

그렇게 모든 감정을 풍화 시킨 어느 날이 되어서야, 성직자 벨이 된 일레인은 그제서야 차분하게 거울 속 스스로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조용한 시골의 교회에 박혀 본래부터 없던 사람인 마냥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자신이 보였다. 시간이 흐르며 어른이 된 스스로의 흉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고생을 너무 한 탓에 제 본래 나이보다 훨씬 나이를 먹어 보였고, 화상과 자상에 엉망이 된 얼굴은 그 자체로도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공작가의 귀족 영애로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언니에게 기대던 겁 많던 아이는 어느새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 성직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듬어주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듬어주며 단 한 번, 성직자 벨은 깊이 후회한 적이 있다. 자신에게 슬픔을 털어놓은 사람 때문은 아니었다. 스스로의 과거에 대한 후회였다. 성직자 벨은 마음 아픈 일을 겪어 슬피 우는 외지인 아가씨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 언니가 힘들었을 때 자신은 이렇게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 세상에 ‘만약’이라는 가정만큼 의미 없는 일도 없지만 벨은 종종 이러한 후회 어린 생각을 했다. 남은 것은 벨이라는 이름과 언니가 남긴 비밀스러운 유산… 그리고 후회. 후회는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친구와 손을 잡고 몸집을 불려 마음 속의 상자 안으로 들어가기를 끝끝내 거부하였다. 벨은 수 년에 걸쳐서 몇 번이고 후회를 눌러 외면하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폭풍을 바로 코 앞에 둔 그 날 까지도. 그녀의 긴 상념을 깨며 불행의 전령이 당도했다. 악녀 엘레니아의 기일 바로 전날, 헬리스 황제가 신분을 숨긴 채 비밀리에 군의 실력자들을 이끌고 시골의 시셀 마을로 들이닥쳤다. 그들을 처음 맞이한 건 같은 교회의 몇 안 되는 동료 성직자 에밀리였다. 에밀리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재빨리 검을 베일을 써서 얼굴과 상처를 가렸다.

"베… 벨 형제님. 손님이 오셨어요. 형제님을 잘 아는 분이라 하시는데...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황급히 벨을 찾아온 에밀리는 질문을 하기 전 호흡을 고르며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러나 한쪽 시력을 잃고 베일까지 뒤집어 쓴 벨은 에밀리의 떠는 모습을 알아챌 수 없었다. 막연한 불안함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뿐.

"...저를요."

“네, 형제님을요…”

몸 전체를 넘어 이제 목소리까지 떠는 에밀리의 모습에 벨은 나머지 멀쩡한 한쪽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언니 엘레니아의 원수가 자신을 잡으러 왔노라고. 그녀가 젊은 시절 두려워 했던 헬리스가 지척에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벨은 언젠가는 이러한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했다. 마음의 준비 또한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때가 도래하자 에밀리처럼 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에밀리 형제님, 제가 손님들을 맞이할 동안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분들을 어서 모아 기도실로 가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게요.”

몸을 덜덜 떨면서도 벨이 걱정되었는지 에밀리는 머뭇거리며 쉽게 움직이지 못하였다. 에밀리의 시선에서 걱정을 읽는 벨은 속으로만 조용히 한숨 쉬며 ‘어서요’ 하고 재촉했다. 착한 사람을 말려들게 한 것만 같아 기분이 차가운 공기처럼 내려앉았다.

“밖에 오신 분들은… …”

“밖의 사람들이 누구든, 후일 저에 대해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 눌러 붙어 앉았고, 가진 것 없고 비루한 여인을 못 본 채 할 수 없어 교회에 받아주었다고요.

“벨 형제님…”

“저를 최대한 모른척하세요. 이름 외에는 알려준 것이 없고 혼자 시간을 보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괜히…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말아주세요.”

당신과 형제들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못한 본심은 속으로 삼키며 벨은 차분한 태도로 검은 베일을 걷어 올렸다. 시셀 마을의 교회에 온 후부터, 사람을 상대할 때라면 대부분 잊지 않고 가려왔던 얼굴의 흉한 상처가 다시 드러났다. 그녀의 상처를 익히 알고 있던 에밀리조차 베일 너머로 보이는 흉한 상처에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벨은 언니의 유품을 숨긴 이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았으나, 시체가 아닌 만큼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개 살덩이는 아니었다. 그녀는 교회 사람들, 특히 에밀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지니고 있었다. 자신을 돌보아준 은인들이 벨칸스와 황실의 악연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다. 신실한 성직자라도 되는 양 손을 모으며 벨은 고개를 수그렸다.

“레니에스님의 축복이 형제님들께 깃들기를.”

혼란스러워하며 어쩔 줄 모르는 에밀리의 다급한 부름을 뒤로하고서 그녀는 교회의 내진으로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성직자 벨이 아닌 죄가 깊은 악녀의 동생 일레인으로서 과거의 악연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왔다.

종일 눈이 내린 1374년의 한 겨울. 갑작스럽게 황제의 임시 비밀군으로 차출당한 중앙군의 마법사 실리카는 솔직히 당황스러운 심정이었다. 어디 듣도보도 못한 시골 마을로 갑작스레 누구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었다니? 심지어 신중하기로 유명한 황제가 직접 나선다니! 헬리스 황제는 신중함을 넘어 매사 의심 가득한 성격의 인물이었다. 어지간한 일에 직접 나서는 일 없이 사람을 움직여 상황을 만들고 관망하는 자였다. 이러한 황제가 직접 발을 담글 일이라니, 짐작조차 가지 않는 건 당연지사였다. 실리카를 포함한 마법사 다섯과 검을 쓰는 기사 다섯, 총기를 다루는데 특화된 마도공학자 둘. 죄다 군에서 일하며 한 번쯤은 실력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는 이들로 이루어진 무리였다. 어디 밝혀지지 않은 마물이라도 잡으러 가는 것인가 살짝 두려움에 떨 무렵, 황제가 군의 실력자들을 비밀리에 차출한 이유를 밝혔다.

“반역의 가문 벨칸스의 마지막 생존자를 처단하러 간다.”